

아시아빈곤선교센터 CAMP NEWSLETTER



2024년 여름호
Vol.52



이철용 목사의 자립선교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탄소중립 건축 사역 :
청년·자립·미래를 향해

이철용 목사 (사단법인 캠프 대표)



소외되었던 지역 청년들

아시아빈곤선교센터는 2007년 설립 이후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시작하여, 2010년부터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시 타워빌 지역, 2017년부터는 딸락주 산호세시에서 농업 관련 사역을, 지난해부터는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열대과일 관련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필리핀 교회의 자립과 빈곤 탈출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나, 항상 아쉬운 부분은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역은 주로 아동, 여성, 성인을 지원하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변화를 이끄는 청년사역자

특히 딸락의 농업지역에서는 20대 전후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외부로 나가도 하루 일당 만 원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프는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탄소 중립 청년건축학교를 시작하여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지역 변화를 이끄는 청년사역자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쟁력 갖춘 새로운 건축방식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경쟁력을 갖춘 경량철골 징크하우스 기술교육과 실제 건축 과정을 통해 딸락 자립선교센터의 필요한 시설을 직접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와 물을 해결하는 에너지 제로하우스도 함께 짓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햇빛이 풍부하여 한국보다 30-40% 더 발전량이 나오고,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2배 비쌉니다. 따라서 청년건축팀의 방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기술훈련과 내부 시설 건축에 집중

현재 청년건축팀은 교육을 받고 직접 건축한 30평 규모의 솔라팩토리, 60평 규모의 지역주민센터인 토기장이의 집, 4동의 게스트하우스 등을 건축하며 원자재를 직접 들여와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필리핀 현지 시청과 엔지니어링 부서, 건축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필리핀 현지 교회 건축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인 선교사들도 우리의 건축 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건축 시공을 위탁하고자 하지만, 현재는 기술 연마와 내부시설 건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일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자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생명을 일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딸락 자립선교센터는 에너지와 탄소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건축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길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내완공을 목표로 하는 주민센터 토기장이의집



1기 건축학교 수료식(2024.3)

“지역청년의 꿈과 딸락 자립선교센터”

딸락 자립선교센터는 작년부터 지역청년들 중심으로 건축팀을 꾸리고 다양한 기술을 전수하면서 새로운 공법으로 징크하우스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팀의 멘토인 황병석목사님과 5명의 지역청년들이 한 팀이 되어서 공사현장은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아플까봐, 누가 힘들까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건축팀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2024년 3월에는 1기 건축학교를 수료하였고, 6월부터는 일이 끝난 후 매주 2회씩 영어교실을 개설하여 실력을 높이는 일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 건축팀의 멘토

○ 황병석 목사 “나와 삶을 나누는 건축팀”

6개월 전에 첫 대면의 날, 맨발에 낫은 슬리퍼 신고, 아이스 대원처럼 옷으로 두건을 만들어 쓰고 눈만 빼꼼히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색을 보니 순간 자신감이 푹 떨어졌습니다. 미친한 경험, 제대로 된 공구도 만져본 적이 없는 20대 초, 중반 청년 3명과 함께 일을 시작한 거지요.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고,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듯 기술적인 것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완성도 높은 기술자가 되었으며 현 5명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원들과 저와의 관계는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정신적 교감이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한국인들보다 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 자랑스럽고, 더 잘살고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이방인인 제가 이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 함께 하지 못할 상황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 지미 Jimmy Cayabyab

안녕하세요, 저는 지미라고 합니다. 26살입니다. 인터뷰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사뽕꾸란에서 아내, 아이들 3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인근의 산에 올라 꿩, 야생 닭을 사냥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기 전부터 사단법인 캠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지금 관리인으로 있는 꾸야 벤과 작년 함께 일했던 꾸야 텍고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로도 행복했고 캠프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재 저는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짓고 있는 탄소 중립 하우스는 분명 튼튼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짓고 있으니까요. (웃음) 기존에 해왔던 건축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짓다 보니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의 제 꿈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예요. 제 아이들 3명 전부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보고 싶네요. 또 아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스스로 작은 집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일을 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황병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건축팀들이 제 상황이나 미래,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해주고 고민해줘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준 캠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건축팀 리더

○ 제랄드 Gerald Jose

안녕하세요, 저는 제랄드이고, 35살이 되었고요, 건축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네요. 사뽕꾸란에서 살고 있고요, 결혼 13년차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TV 보기랑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요.

현재 캠프 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사리사리 스토어(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캠프와 함께하기 전부터 건축팀이 매일매일 휴식시간에 저희 가게로 와서 캠프를 알고 있었죠. 어느날 준비와 지미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전에 채석장, 한진해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일을 했어요. 용접을 전문적으로 했지만 건축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잠시 버퍼링이 걸렸던 것 같네요. (웃음)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과는 정말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건축을 배우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용접이라는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저의 꿈은 현재 사리사리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들이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제 가족과 친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이 있긴 하지만 아들을 위해 하나 더 집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팀, 함께하는 황목사님, 그리고 캠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축이 처음이다보니 실수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실수들을 이해해주고 가르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건축팀의 말형



◦ 건축팀의 분위기 메이커



👤 **제포이** Jepoy Cayabyab

안녕하세요 저는 제포이예요. 23살이고 건축팀 리더인 지미와는 형제예요. 저는 농구, 등산, 개구리잡기도 좋아하고 일이 끝난 후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찾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형인 지미와 캠프 직원인 존비의 소개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 덕분에 캠프도 알고 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남들이 형과 일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형과 함께 일한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너무 편하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웃음) 건축에 참여하면서 솔직히 건축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자재들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건축만큼 팀워크를 느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팀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나가고,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 실시간으로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제 꿈은 작게라도 경영을 해보고 싶어요. 사리 사리 스토어 같은거요. 같은 건축팀인 제랄드가 사리 사리 스토어를 운영하니까 조언을 받아 볼까봐요. (하하)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3명정도 낳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간단하게 집을 만들어보고 싶네요.



◦ 건축팀의 햇살같은 존재



👤 **존비** John Vhee Domingo

안녕하세요 저는 존비입니다. 올해 22살이 되고 산호세에 살고 있어요. 농구랑 온라인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지금 센터에서도 아기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볼라칸에서 진행되었던 농업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캠프 스텝이었던 꾸아 줌스를 만나 캠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방과 후, 주말에 돼지농장에서 일하고, 졸업 후 양계장, 호텔에서 일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던 시기에 고등학교 선생님인 제이셀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셨어요. 농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농업이 힘들긴 하지만 1차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원래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농업 활동을 했는데, 건축이 시작되면서 건축팀에 참여했습니다. 건축을 옆에서 보기만 했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제가 직접해보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복잡해서 어렵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건축을 하다보니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건축을 처음으로 해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복잡하긴 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나가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니다. 나중에 스스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꿈은 농업을 통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지금 집에 염소 18마리, 돼지 5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걸 사고 팔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윤이 안나지만요. (웃음) 더 탄탄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와 농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여기 사방꾸란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어요.

저는 일하면서 먼저 건축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축 뿐만 아니라 함께 언어도 배우고 다른 부분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과정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축을 가르쳐주시고 함께 발달할 결과물을 만들어나가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건축팀의 막내



👤 **줄라이** July Tabaquero

안녕하세요, 이름은 줄라이이고, 올해 20살이에요. 건축팀의 막내고요. 사방꾸란에 살고 저희 집에는 동물이 아주 많아요. 닭, 염소 뿐만 아니라 카라바우(물소), 그리고 원숭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저는 농구, 헬스, 오토바이 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작년에 아버지가 캠프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때 캠프를 알게 되었고 새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함께하게 되었어요. 캠프와 함께하기 이전에 농장에서 일했었고 건설현장에서도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하는 건축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서 재밌고 집도 엄청 가까워서 좋아요.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는 단순한 보조자였는데 여기 와서 용접이나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직접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더 배우면서 건축 기술들을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요.

제 꿈은요. 미래의 가족을 위해 정말 큰 집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땅도 사서 농사도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타는 걸 정말 좋아해서 새로운 오토바이도 사고 싶어요. 아직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파트너 만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웃음)



캠프 사역 이모조모

◦ 민다나오 사역지



민다나오 두리안 농민 협동조합 4차 기술교육 진행

지난 5월 18일, 필리핀 민다나오 마누엘귀앙가 두리안 시범농장에서 80명의 협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충해 관리를 주제로 4차 기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USM(남민다나오대학교) 농업개발 연구센터 소속인 멜 교수님은 두리안 농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충과 질병에 대해 설명하며 꾸준한 모니터링과 유기농 비료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 이후에는 시범농장의 두리안 나무를 관찰하고 각자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딸락 사역지



커뮤니티 도정센터 재정비와 무료 지역 서비스 본격화

6월 13일, 딸락 자립선교센터는 딸락에 있는 도정센터의 재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도정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정서비스는 지역주민들에게 현미와 백미를 선택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정센터는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왕겨, 미강 등)을 양계용 사료와 농업 활동에 활용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료 도정서비스 홍보 현수막을 센터 정문 앞에 게시하여 매주 지역민들이 무료 도정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무료 도정서비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불라칸 사역지



사회적기업 익팅(Igting), 2024 팀빌딩 워크샵 진행

캠프 1호 사회적기업 익팅(Igting)은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바탄지역에서 약 30명의 멤버가 참여한 팀빌딩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주로 팀원들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2일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서로를 더 알고가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익팅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팀원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마닐라 사역지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 아동복지센터 Kids for Christ와 기부 프로그램 진행

캠프의 2호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의 마카티 올가매장은 6월 16일 마닐라 PACO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 Kids for Christ와 협업하여 올가 고객들에게 기부받은 책과 가방, 장난감과 인형 등을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기부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올가의 지역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올가 직원들은 총 42명의 아동들에게 기증받은 선물꾸러미를 정성스럽게 전달했고, 게임과 율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비전트립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8월부터
- 신청방법 : 이메일 campint@icamp.asia, 02-3147-0309, 홈페이지 www.icamp.asia(비전트립) 참조
- 캠프 필리핀 사역현장
 - 마닐라 사업장 :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친환경매장을 방문하여 도농교류 현장 체험
 - 불라칸 사업장 :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와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식품가공 현장과 친환경 양계장 체험 활동
 - 딸락 사업장 : 딸락 자립선교센터와 올가 농장 봉사활동, 지역학교와 인근 소수민족 자립지원 활동
 - 민다나오 사업장 : 두리안 협동조합 4개 바랑가이 방문, 민다나오 소재 대학교와 기관 방문

후원계좌 : 우체국 010033-01-006981 (아시아빈곤선교센터)



🇰🇷 캠프 본부 (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 02-3147-0309

🇵🇭 캠프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 ORGA store, G/F, 115 Gamboa,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Tel : +63-2-8354-2858, +63-905-307-0911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민다나오 : Lagudas Farm, Purok 3, Brgy. Sirib, Calinan Dist., Davao City

🌐 홈페이지 : www.icamp.asia

✉ 메일 : campint@icamp.asia (필리핀) camp-ph@icamp.asia

📝 블로그 : blog.naver.com/camplove11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mp.asia

📷 인스타그램 : @camp_int

📺 유튜브 채널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카카오톡 채널 :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캠프 게더타운 : <https://url.kr/9yca8>



캠프 후원하기
QR 바로가기

· 사단법인 캠프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제개발협력 NGO이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회원입니다.